

여가중심 사회에서의 새로운 낚시 문화 창출의 필요성



오 세 숙 경기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 중심사회’에서 ‘여가 중심사회’로의 전환이다. 경제적 성장을 모토로 하는 ‘일 중심사회’는 한국이 근면성을 발판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적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련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개인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가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를 열었던 한국 사회가 고도 경제성장에만 집중해 국민들의 삶의 질 문제까지 배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자각도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의 사회적 요구로 발전한 ‘여가 중심사회’로의 전환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여가 시간의 확대는 여가 관련 부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졌으며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이 급격한 성장세에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 ‘걷기 열풍’과 캠핑의 대유행은 이런 사회적 변화의 연장선상에 나온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인 걷기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즐기는 것뿐 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트래킹 코스를 가족과 함께 찾아 자연 속에



서 여가를 즐기는 형태까지 발전했다. 순식간에 인구 500만 명을 넘어선 캠핑도 아웃도어 붐과 가족 동반 여가활동이 잘 접목된 여것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한국 여가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는 낚시도 이런 여가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변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한국의 낚시는 ‘일 중심 사회’에서 대중적 여가로 발돋움했지만 ‘여가 중심사회’가 되면서 그 성장세가 다소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의 낚시 문화가 어떻게 가족 동반 여가시대에 잘 어울리는 여가 활동으로 새롭게 정착할 수 있을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일 중심사회’에서의 낚시 대중화

‘여가 중심사회’에서의 낚시 문화의 창출을 말하기 이전에 ‘일 중심사회’에서의 낚시의 대중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고유의 낚시 문화를 파악해야 변화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낚시 문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도시의 낚시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전까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실업가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낚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 부터였다. 낚시회는 직장에서 생겨난 경우도 많았지만 주류는 동네 낚시점이 모태였다. 낚시점은 낚시 용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낚시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전세 버스까지 직접 대절해 낚시터까지 회원들을 안내했다.

이 시기 낚시회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고속도로의 개통, 실질소득의 성장, 낚시 용품의 대중화가 기여하였으며 이 덕택에 특정계층이 향유했던 고급 스포츠인 낚시가 대중적인 여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하지만 낚시 대중화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떠났던 대중들의 욕구 때문이었다. 이들은 새롭게 정착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중에 엄청난 업무를 소화해야 했다. 더욱이 이들이 일하던 사무실이나 공장의 작업환경은 좋지 못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이들은 주말에 오염된 도시에서 탈출해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의미다. 그 때 동료들이나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즐길 수 있었던 여가 활동 중 하나가 낚시였던 셈이다.

낚시회를 통해 단체로 즐기던 낚시 문화는 1980년대 마이카 시대의 개막과 함께 소규모로 즐기는 낚시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충주호 등 대형수면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한국 민물낚시의 전성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낚시의 대중화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부 유명 저수지나 수로에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어족자원 감소와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홀로 고기를 잡는 기쁨을 누리하고자 하는 낚시인들의 욕구는 충족되기 힘들었다. ‘고독한 쾌락’이



라는 낚시 고유의 특징이 사라진 셈이었다.

이 시기 또 한 가지 한국 낚시 문화의 변화는 ‘도시 탈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낚시 형태가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근교의 양어장에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낚시인들이 자연경관은 좋지만 먼 곳에 위치해 있어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낚시터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낚시터에서 고기를 낚는 ‘손맛’을 손쉽게 느낄 수 있는 양어장을 선호했다는 증거다.

한 발 더 나아가 1990년대에는 도심에 위치한 ‘실내 낚시터’까지 생겨났다. 점심시간이나 휴일에 잠시 동안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실내 낚시터 유행은 인스턴트식 여가 선호현상이 반영된 상품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바다낚시와 같이 자연 속에서 역동적인 낚시를 즐기려는 낚시인들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 중심사회’에서 살고 있던 한국의 대중들은 시간 절약형 낚시인 양어장 낚시나 실내낚시의 매력에 더 쉽게 빠져 들었다.

3. 낚시문화 문제점

2000년대 이후 ‘여가 중심사회’를 맞아 나타난 여가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연친화적 여가의 득세와 가족 여가의 재발견이다. 앞서 언급한 캠핑이 야외 여가활동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배합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여가의 중요성은 ‘여가 중심사회’에서 낚시 문화의 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성별 낚시 인구 및 낚시 횟수

(단위 : 천 명)

구 분	계	잠재 낚시 인구		일반 낚시 인구		전문 낚시 인구	
		1년, 1~2회	1년, 3~4회	1년, 5~6회	한달, 1~2회	일주일, 1~2회	일주일, 3~4회 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2)

전통적으로 낚시는 남성 중심의 여가였다. 일요일에 낚시터로 향하는 남편들 때문에 낚시인들의 부인에게는 ‘일요과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다. 여성들의 낚시 참여가 1970년대 이래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낚시는 남성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570만 명 낚시 인구 가운데 남성은 약 440만 명으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30만 명으로 24%에 머물고 있다. 130만 명의 여성 낚시 인구 가운데 50% 이상은 1년에 1~2회 출조를 하는 잠재 낚시 인구로 74만 명으로 조사됐다(표 1 참조).

여성 낚시인구가 적다는 의미는 낚시가 가족 중심 여가로 탈바꿈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이후 주말을 가족과 함께 야외 여가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남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

요한 부분이다. 부인이 원치 않는 여가 활동을 남편의 권유나 강요로 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시스템이 이완된 최근 한국 사회는 전 가족 구성원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우선적으로 찾는 풍토가 정착해 있다.

자연 친화성이라는 측면에서 낚시는 그 주도권을 등산이나 트래킹 같은 야외 여가 활동에 빼앗긴 것도 문제점이다. 낚시는 분명히 자연과 호흡하며 즐기는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이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 때문에 웰빙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여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낚시 관련 미디어 보도가 환경오염과 관련된 뉴스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낚시로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1차적으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어분, 낚시추(납)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2차적으로 낚시터 인근 환경오염, 물고기의 납중독과 같은 피해를 거론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내수면 낚시터의 오염물질 발생량 추정치

구 분	연간 발생량		1인당 발생량	연간 낚시 이용객
계	8,750(톤)	100(%)	평균 2.5 kg	350만 명
떡밥, 어분 등	3,500	40	1 kg/년	
쓰레기	1,750	20	0.5 kg/년	
분뇨	3,500	40	1 kg/년	

*자료출처 : 강원도 맑은 물 보전과 내부자료, 이광남(2003) 재인용.

4. '여가 중심사회'와 낚시 문화 발전의 방향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여가 중심사회로 이전해가는 과정에서 낚시문화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에서 가족중심형 여가활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마릿수 중심의 잡기 위주에서 양궁과 같은 멘탈스포츠로의 동호인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다른 여가 활동과의 결합도 낚시 문화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 해양 여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바다낚시나 캠핑 중에 할 수 있는 계류 낚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미 익숙해진 여가 프로그램과 낚시의 결합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낚시와 친숙해 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낚시의 자연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영낚시터의 개발도 낚시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중의 낚시터는 대부분이 사설로 지나치게 시장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공영낚시터를 개발하여 어린이, 학생, 가족, 여성 등 잠재 낚시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의 개선과 함께 낚시가 자연 친화적 여가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해양 관광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는 해양 관광 프로그램에서 낚시는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민물낚시에 비해 더 역동성이 강조되는 바다낚시는 가족 여가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해양 관광에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바다낚시 참여도도 증가한다는 점도 이 같은 추론을 가능케 해 준다<표 3 참조>.



〈표 3〉 국민 1인 당 해양관광 참여 횟수와 바다낚시 참여 횟수 변화 추이

국민 1 명이 1년 동안 해양관광에 참여하는 횟수	1997년	6.9회
	2010년	7.3회
	2030년	8.3회
1년 동안 바다낚시 참여 횟수	1997년	1,423만 5천 회
	2010년	2,414만 3천 회
	2030년	4,819만 6천 회

*자료출처 : 이승우(2008).

그리고 낚시 공간을 제공하는 농어촌 지역주민과의 공생교류도 낚시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부분이다. 낚시 동호인들이 농어촌 지역을 방문, 여가활동을 즐기는 만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나오면서

‘일 중심사회’에서 낚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민물낚시 위주로 발전한 한국의 낚시 문화는 남성이 주도했으며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가 낚시회라는 구심점을 통해 분출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코드도 숨어 있었다. 남성들이 동료들과 떠나는 낚시여행은 대체로 여성이 배제된 여가였다. 경제 성장의 역군이었던 베이비 붐 세대들은 낚시를 통해 ‘일 중심사회’가 억누르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다.

자연친화적인 여가인 낚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도시의 인스턴트 여가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시간의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이 점점 시간이 많이 드는 낚시여행을 즐기기보다 고기를 잡는 행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민물낚시에서 어족자원의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가 함께 발생해 낚시의 성장세는 1990년대 이후 정체기로 접어들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여가스포츠의 활성화로 대중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2000년대 ‘여가 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낚시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 때 유행하기 시작한 가족 여가와 자연친화적 여가 활동으로 낚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낚시의 이미지가 이런 인식을 만든 셈이었다.

‘여가 중심사회’로의 전환기에 낚시문화는 가족중심형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자원보존형으로, 멘탈스포츠로, 농어촌교류활성화로, 해양관광과의 접목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낚시의 저변확대가 이뤄진다면 여성과 젊은 세대들의 낚시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자연스럽게 낚시 산업의 지속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